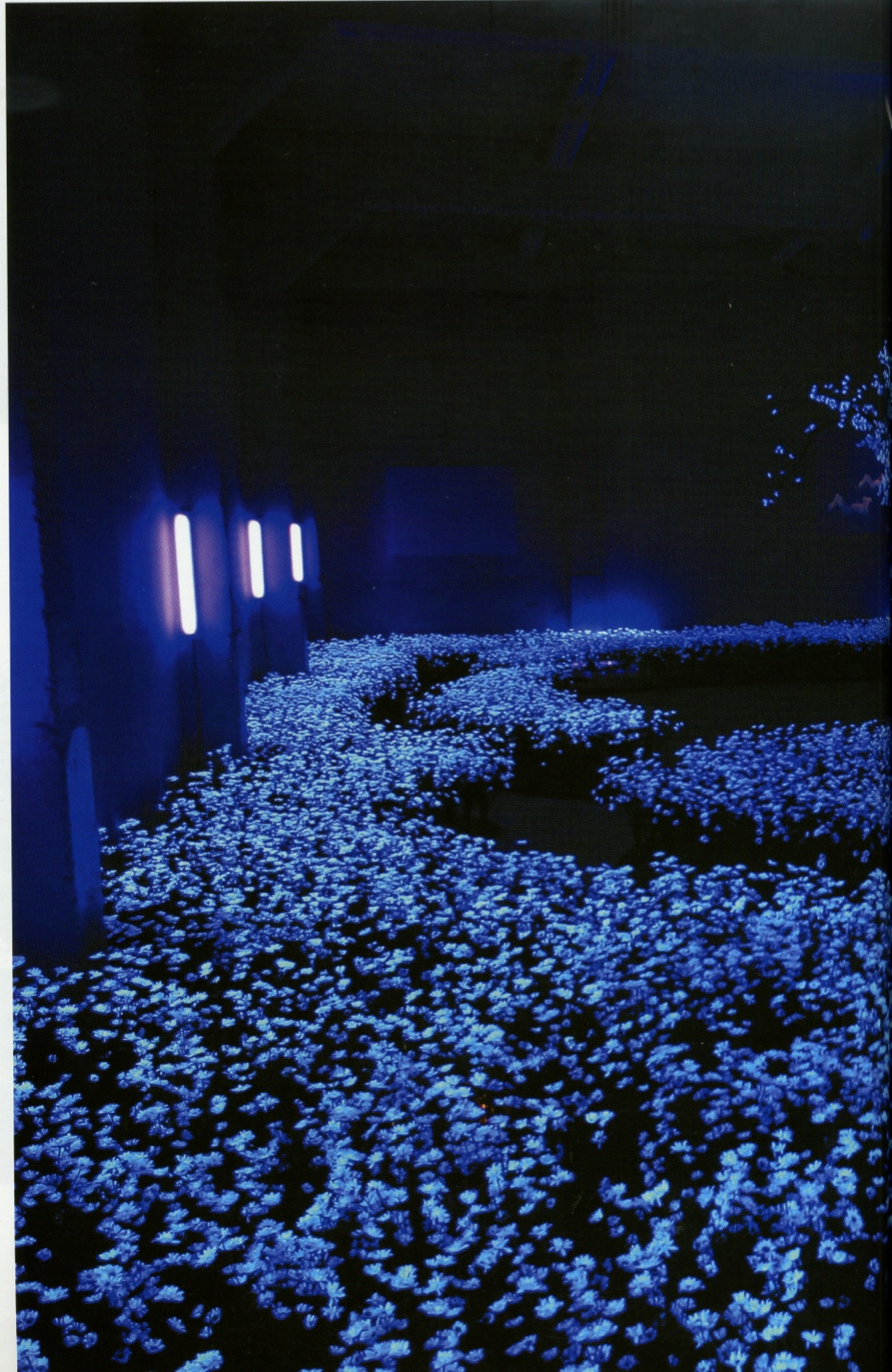


corp-o-talk

# ‘비밀 정원’을 다시 방문하며

윤애영 Yun Aiyoung





스페인의 열정은 투우사의 붉은 깃발이 말해 주듯 강렬하고 역동적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스페인인들의 타들어 갈 듯한 열정은 한 예술인이 보여 주는 작품에 의해 잠시 멈춰버린 듯했다. 윤애영의 500m<sup>2</sup> 규모의 설치 작품, '비밀 정원Jardin Secrete'은 차가움, 정돈됨 그리고 냉철함을 주는 듯 하나, 이 정원은 실제의 정원이 아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꿈의 세계다. 이 세계 안에서 관객들은 감정과 생각의 논리 사이에서 중력 없이 떠돌게 된다. 이 느낌을 다시 기억해 보기 위해 윤애영의 '비밀 정원'을 다시 방문해 보기로 했다.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The State Russian Museum, St. Petersburg, Russia, 2002



**클라라 신** '비밀 정원'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

**윤애영** 비디오 설치 작품 '비밀 정원'은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Foundation Metronom 초대전(2001)에서 처음 선보였고,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2002), 프랑스 생프랑스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2005)에서 재연된 바 있다.

'비밀 정원'은 간단히 설명하면, 꿈의 정원, 시간의 정원, 의식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제목 그대로 신비스런 삶의 모든 것을 찾아가는 공간을 비디오 영상 설치로 재현한 작품이다. 정원은 내 꿈의 표현이고 나무는 내 영혼의 이미지다. 수없이 많은 꿈속에서 나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만난다. 나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나'가 되어 여행한다. 때로는 새가 되어, 때로는 물고기가 되어, 또는 구름이 되어 떠도는 영혼이 된다. 나에게 꿈속의 시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시공 속의 모습이다. 마치 장자의 나비 이야기에서처럼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의문을 갖는 것처럼 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어딘가에 동시에 존재함을 느낀다. 이러한 동시성과 삶에 대한 갈증을 '비밀 정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내가 체험한 시간의 여행이 아니라 관람자 개개인 각자가 또 다른 의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그들만의 시공간으로 여행하여 다음날 아침 이슬이 되어 나의 정원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클라라 신** 대형 설치 작업이라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눈으로 보기 보다는 몸 전체로 체험하게 하는 것 같다. 큰 규모를 통해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나?

**윤애영** 500㎡ 규모의 전시장 전체 공간을 이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설치하였다. 정원에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들이 나 있고, 관객들은 이 신비의 산책에 초대된다. 정원에는 야생에서 피는, 화려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지도 않는 청순한 꽃 마가렛이 가득 피어 있고, 매화꽃으로 만발한 나무가 서 있다. 마가렛 사이사이, 나뭇가지 사이에 투명한 스크린들이 걸려 있다. 스크린 위로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적 비디오 영상들이 마치 어슴푸레한 기억과도 같이, 또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흔적과도 같이 너울거린다.

'비밀 정원'이 설치된 전시장에는 보물찾기하듯 이러한 영상을 찾아다니는 사람, 숲 속에서 거닐듯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 나무 밑에 편안히 누워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관객들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산책하듯 산책을 한다. 막혀 있는 길도 있고 열려 있는 길도 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 사이에, 꽃 틈새에 있는 영상들을 발견하기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느 길이 막다른 골목인지 안내하지는 않는다.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유하며 자신의 호기심에 맡긴 채로 직접 느끼고 찾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길 바란다.

**클라라 신** '비밀 정원'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 있었나?

**윤애영** 200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아르코 아트페어에 피이드칼베르 갤러리의 초대로 비디오 영상 설치 '교차Intersection'을 출품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의 초대를 받아 '비밀 정원'을 제작하게 되었다. 메트로놈 재단 및 프랑스 문화성 AFFA, 바르셀로나 프랑스 문화원, 스페인 문화성 등의 후원을 받았다. 작품 '교차'에는 안개가 짙게 낀 숲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나무들, 그 사이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움직이는 인물이 등장한다. 정렬된 나무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으로 시퀀스가 시작된다. 전시장 정면의 나무와 물속의 풍경이 결합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전시장 공간에는 여러 개의 투명 천 스크린이 배치되고, 그 스크린들 위로 벌거벗은 채 뛰어가는 아이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배경의 풍경과 교차하거나 분리된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웅장한 사운드가 퍼지는 공간 속을 배회하는 아이와 함께 관람객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에 동반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단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 그 '과정'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아마 작품 '교차'가 '비밀 정원'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라 신** 당신의 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초상화, 자화상과도 같은 이미지들이 종종 있다. 모델을 쓸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직접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Intersection, 2000  
Video loop projected in a darkroom,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Japan, 2002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The State Russian Museum, St. Petersburg, Russia, 2002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Fondation Metronom, Barcelone, 2001

**윤애영** 작품 속의 나는 작품을 위한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의식을 몸(신체)으로써 전달하는 매개다. 실제 촬영에 들어가면 난 나의 의식 속으로 빠져 들어가 움직이게 된다. 나의 몸 동작 하나하나의 나의 또 다른 의식의 공간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간 안의 삶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내 이미지가 작품 자체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되어야 한다. 춤추지 말고 춤 자체가 되라”라는 라즈니쉬의 말처럼 말이다. 주어진 나의 시간에 현재의 나와 영상 속의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클라라 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시간을 파리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예술인이 사랑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매력을 느꼈던 점이 있는가?

**윤애영** 파리에 거주하면서 나무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파리는 내가 나무를 알게 되고, 나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한 곳이다. 그리고 나무를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파리의 카페다. 카페는 많은 예술가의 모임 장소이자 수많은 예술사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카페는 나의 두 번째 아틀리에가 되었다. 카페에서 파나체

한 잔을 마시며 주위를 바라볼 때 난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버린 듯하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나의 육신이 분리되어 파나체를 마시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이라는 현실의 나와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내가 만나는 장소인 것이다.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 카페가 있으면 늘 기쁘다. 그곳은 나에겐 마치 내가 다른 시간으로 가는 도중 잠시 들리는 주막집과도 같은 마음의 휴식처다.

**클라라 신** 여성이자 이방인으로서 보수적인 나라에서 작가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가?

**윤애영** 작업을 할 때 여성이란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진 않는다. 여성이기에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 주어진 주변 상황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이방인이다.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며 떠도는 이방인, 지금의 현실과 또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이방인, 땅 위에서 하늘의 구름을 사모하는 이방인, 지독한 의식의 고독과 싸우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자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떠도는 내 영혼에 축배를 마시며 지낸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들은 호기심, 의식의 갈증들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존재성을 일깨워 준다.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Centre d'art contemporain, Basse-Normandie, Caen, 2005

새로운 무엇, '작업'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지만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날 이끌고 있다. 그 순간들이 기쁨으로 가슴에 내려앉을 때면 나 역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피우는 나무처럼 다시 새로운 의식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클라라신**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가?

**윤애영**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모든 작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깊은 사고로 자신을 통해 세계를 느끼고, 삶의 신비를 찾아 노력하는 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클라라신** 후배 작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애영**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충실하길 바란다. 춤추지 말고 춤이 되고, 노래할 때는 노래가 되어라. 작업하며 가슴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충실하면 어느 날 주어진 어떤 삶의 문앞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N

**글** 클라라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매 회사 아르큐리알을 거쳐,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Galerie Albert Benamou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윤애영** Yun Aiyoung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디오/설치 작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국립미술관, 스페인의 ARCO 등 세계적인 미술관, 전시 공간 등에서 그 작품이 전시된 바 있다. 많은 평론가들의 그의 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해 오고 있으며, 그의 비디오 설치 작품은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 컬렉션 F.N.A.C, 한국 국립 현대미술관 및 비중 있는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